

광주상의 “금호타이어 노·사·상생 합의점 조속히 찾아야”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법인계좌 압류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사 경영진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법정 관리 직전까지 갔던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자를 이어가 지역민과 경제계는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며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커다란 부담 안겨...‘우려’

“사태 장기화될 경우...지역경제 전체에 영향 끼칠 것”

“하루빨리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금호타이어가 지역산업 생산과 일자리 확대에 큰 역할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0년 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금호타이어가 최근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

역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감도 함께 표시했다.

광주상의는 “올해 창립 60년을 맞는 금호타이어는 경영진과 노조원의 기업인 동시에 우리 지역민의 기업”이라며 “노·사가 상호 상생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노사 양측과 전국 670여 협력업체 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

을 끼칠 것”이라고 미래를 걱정했다.

이어 “지역 경제계는 금호타이어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쟁점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상생의 정신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재차 합의점 찾기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선욱 기자



폭염속 고추말리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18일 오후 인천시미추홀구 송의동에서 고추를 말리며 물을 뿌리고 있다.

‘여성 7시간 납치 인질극’ 30대 구속

법원 15일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있다” 이유

여성을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지난 13일 여성을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들에게 약 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13일 오후 5시2분경 경기 남양주와부읍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흥기로 피해자를 위

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여성은 A씨와 면식 없는 사이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 인지 이후 납치 차량을 긴급수배하고 공조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다.

납치 차량은 추격전 끝에 남양주에서 경찰에 포위됐다. 검거 직전 흥기를 든 A씨와 대치 상황이 벌어졌으나, 설득을 통해 신병이 확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운전은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세월호 선체 ‘목포 고하도’서 영구 보존된다

‘2027년 최종 거처 목표’...해수부, 선체 보존 방안 마련 중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세워져 있는 모습

세월호 선체 영구 보존을 위한 거취 장소가 전남 목포로 확정됐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은 현재 전남 목포신항에 임시 거처돼 있는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처 장소로 목포 고하도 신항 배후단지를 최종 확정했다.

고하도 신항 배후단지는 현재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1km가량 떨

어졌다.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거처 장소를 놓고 전남 목포·진도 경기 안산, 제주 등을 후보지로 선정해 논의해왔다.

해수부는 오는 2027년 최종 거처를 목표로 선체 보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예산 1500억원을 투입해 선체를 옮긴 뒤 수리해 추모·기억 공간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시와 교육 등의 역할을 할 복합관 건립도 함께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는 2027년 최종 거처를 목표로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면 2027년에는 거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1091일 만인 지난 2017년 4월9일 인양됐다. 선박에 있던 펄 등을 제거한 뒤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다.

정승호 기자

정의연 “수요집회 현장 오지말라...더 조심할 때”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 당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오는 19일 진행될 제1453차 수요집회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정의연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며 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의연은 “수요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현

장에 오지 마시고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연은 코로나19 전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26일 열린 제1428차 수요집회부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시위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서울 종로구의 집회제한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8일부터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형식으로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이 꾸준히 오프라인



수요집회에도 참여하고 있어 이 같은 공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봉우 기자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